

女性研究

The Women's Studies

2015. Vol. 88 No.1 pp.457~489

여성의 지역사회인식이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활동 참여 의지에 미치는 영향
- 지방정부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이재무 · 김행열

여성의 지역사회인식이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활동 참여 의지에 미치는 영향

- 지방정부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이재무*, 김행열**

초 록

본 연구는 바람직한 사회적 자본 축적과 전향적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가분하게 요구되는 여성의 지역활동에 대한 참여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과학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익을 담당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지역활동이 다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들의 지역에 대한 애착심·적극적 관심·소속감 등의 지역사회인식,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실시되고 있는 각종 지역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 전문성·공정성·투명성 차원의 지방정부신뢰 수준을 설문으로 파악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통해 각 변수별로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 여부를 분석하였고, 지역사회인식을 독립변수, 지역활동 참여 의지를 결과변수, 지방정부신뢰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응답 여성들의 지역사회인식, 지역활동 참여 의지, 지방정부신뢰 수준은 모두 낮은 편이었으며, 여성들 학력에 따라 지역에 대한 관심과 소속감이 차이가 날 뿐, 다른 개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여성의 지역사회인식과 지역활동 참여 의지, 지방정부신뢰 사이의 관계는 모두 긍정적(+) 영향관계이며, 지방정부신뢰가 매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주제어 : 애착심·지역관심·소속감 등 지역사회인식, 지역활동 참여 의지, 전문성·공정성·투명성 등 지방정부신뢰

*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 광주대학교 외래강사

I. 서 론

한국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는 본격적인 국가 발전기였던 198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참여하는 분야 역시 크게 다변화되었다(전형미, 2002: 21). 이는 사회구조가 과거 노동집약적 산업사회에서 기술집약적 지식사회로 전환되면서 환경의 전면적인 변동이 있었고, 함께 발달한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정보와 자원을 여성들이 비약적으로 수취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여성이 사적 공간에서 탈피해 자신의 새로운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며, 여성 개인의 효능감과 집합적 정체성 확립, 자아실현 기회 향유, 지역 내 민주성 확산 및 지역발전 촉진 등의 효과를 창출한다(민소영·이영순, 2014: 210). 또한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평등과 자아실현이라는 국가의 추상적 가치를 달성함은 물론 전향적인 사회 성장과 국가발전을 위해 현실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적 중요성을 갖는다(김태현, 2002: 27). 그러나 전술한 필연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이 절실하며,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생산에 있어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는(곽현근, 2003: 281; 양기근, 2008: 45)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들의 지역사회 참여와 기회 부여는 매우 저조했던 과거에 비해 나아진 것일 뿐 절대적 기준에 볼 때 여전히 한국 남성들이나 선진국의 경우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민간이나 시장 부문에 대한 참여 수준보다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사회 사업이나 제반 활동에 대한 여성들의 참여 수준이 더욱 한정적이다. 그동안 행해진 다른 정책들의 선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의 지역사회참여 확대라는 목표도 정부와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노력의 경주를 통해 민간으로 광범위하게 파생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통합 및 자본의 축적, 다양성 관리의 관점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지역활동에 여성이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방면으로 숙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정책이나 공공부문의 활동이 여성들의 일상적 관심과 생활 인식과의 친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성의 지역활동 참여가 저하된다는 선행연구(주성수 외, 2007: 207-208)의 결과를 감안하면, 여성들의 지역활동 참여에 대한 고민은 여성들의 인식을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인식(sense of community)은 인식하는 대상의 속성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게 규정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과 사회구조 사이의 관계를 특성화하기 위해 활용되며(Chavis & Wnadersman, 1990: 56), 특정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물리적 환경(physical environment), 환경 내 사회적 상호작용(interaction), 이들과 관계된 부분의 만족(satisfaction) 수준을 의미한다(Zaff & Devlin, 1998: 382-386). 그래서 소속감(membership)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기대하는 행위를 통합(integration)하여 이행함(fulfillment)으로써 충족감을 공유하고, 이러한 활동이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belief) 등으로 구체화된다고(McMillan & Chavis, 1986: 212). 따라서 지역사회인식은 특정 개인에게 있어 자신이 소속된 지역 내 생활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의 수준과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며, 여성들의 지역활동 참여 역시 지역사회인식이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다만 분석과정에 특정 사회 현상을 단순한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특정 개인이 시민으로서 사회적 혹은 국가적 제반 행위를 영위함에 있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어떤 형태로든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배귀희·임승후, 2009; 이해인·홍준형, 2013; 정수현 외, 2012)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의 상황적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전향적인 여성의 지역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여성들이 평소 지역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 수준과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사이의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더불어 영향관계 분석의 타당성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의 구성요소들을 매개요인으로써 설정하여 이들의 영향 관계까지 포괄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효용성 높은 자료로써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구조화를 통해 산출된 본 연구의 결과는 남성에 비해 미약한 한국 내 여성들의 지역활동 참여에 대한 기초 자료로써 활용가치를 가지며, 여성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이나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 등을 확인함으로써 후속 연구에 대해 제고할 수 있는 탐색적이고 계속적인 연구로써 의미를 갖는다.

Ⅱ. 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의

1. 분석요인의 이해 및 선행연구 고찰

첫째, 지역사회인식은 다의적이며 다양한 상관관계와 상호작용이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개인 수준의 가치판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사회를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개념 상 차이가 나타난다. Charon(1987)은 개인과 집단 조직, 사회 사이의 형성관계를 도식화하여 설명하고 지역사회는 개인과 사회가 연결되는 실체적 연관 기제(mechanism)라고 규정하였으며, Herbert & Ranie(1976)는 지역사회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지리적 특성보다 개별적인 사람들의 특성이 더 중요하며 사회적 표현, 지역사회체제, 인간 조직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Hillery(1955)는 지역사회는 일정한 지리적 범위 내에서 하나 이상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행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진다고 정의하였으며, Wilkinson(1991)은 시각을 달리하여 지역사회의 지방특성(locality)을 강조해 한정된 특정 지리적 영역이 전제되어야만 사람들이 모임으로써 지역사회가 존재할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Nowell & Boyd(2010)는 보다 발전하여 자원(resource)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즉 지역이라는 공간에서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가치를 느끼고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각 사람들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자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서상목·최일섭·김상균(1989)은 공동의 소유와 참여, 자치를 내재하는 공동운명체로써 일정한 지역 내 공동목표의 달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집단생활체로, 정지웅·임상봉(1997)은 일정한 지리적 범주에 소속되어 거주하면서 일정 수준 공통된 유대에 근간하여 서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인간 집단으로, 황용필(2006)은 지리적 근접성과 단일화된 사회구조, 문화적 동질성을 공통적으로 갖는 공동사회 집단으로 각각 정의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기본 구성요소는 일정한 범위 내 지리적 영역, 구성원으로써의 인간, 그들 사이의 상호연계, 자원교환 등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인식을 유형화하기 위한 분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었지만, 지역사회 내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 기준에 의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일관되거나 통일된 준거에 대한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통상 앞서 확인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특성에 대하여 연관성이 높은 지표들, 예컨대 소속감, 연대·점통일감, 충족감,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 정서적 친밀감, 동료의식, 자긍심, 역할에 대한 인식, 애착심, 안심하는 마음 등 제반 감정, 지역에 대한 관심, 평가, 지역 내 각종 요소에 대한 만족도, 정주의식 등이 지역사회인식을 구성하는 요인들로 규정, 활용되고 있다(김경준, 1998; 김남수 외, 2011; 윤종국, 2008; 이유찬 외, 2004; 임상호, 2007). 전술한 선행연구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각 연구의 취지에 맞춰 여러 요소들을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된 요인으로 분석이 이루어진 경우가 없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요인들 중에는 애착, 관심, 소속감 등과 같이 다소 상이하게 표현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요인들이 있다. 지역사회인식으로써의 애착심(attachment)은 자신이 소속된 지역에 대한 깊은 우호적 감정을 의미하는데, 일정한 공간적 영역에 국한된 제한성을 속성으로 갖고 있어 보다 복잡하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친근감·연대감·의존성·정주의식 등의 감정과 직결되며, 개인의 각종 행위의 근원이 되는 중요한 동인이다(윤지현·이환봉, 2008: 78; 임상호, 2007: 47). 지역사회인식으로써의 관심(interest) 역시 특정 지역에 대해 개인 정서적으로 주의나 사고를 집중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역사회와 관련된 관심은 일정한 공간적 영역 내에서의 상호작용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애착심에 대한 규명을 통해 설명되고(고호석, 2013: 268), 태도·신념·지식·유대감·동조 등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이다(조수영·배지양·권구민, 2010: 150). 지역사회인식으로써의 소속감(membership)은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에 대한 기대욕구 중 하나로써 정체성을 인지·공유하고, 지역공동체 내 사회화 및 적응력·활동의 활성화·동기부여·정서적 결속 등의 기반이 되는 개념이다(김철호, 2013: 155). 특히 지역사회인식이 지역이라는 특정 공간에 귀속됨으로써 나타나는 특성임을 감안하면 소속감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세 요인 모두 1차적 감정 요인으로 전술한 것처럼 다른 감정 요인의 근원적 기능을 하며, Berkman(1983)이나 Conwell & Wait(2009)이 주장한 바와 같이, 다양한 지역사회인식 중에서

사회적 애착과 외부에 대한 관심과 연계(network), 특정 체계에 대한 소속감 등 이들 요인이 결여되는 경우 극도의 사회적 고립(extreme social isolation)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요인들이 지역사회인식의 세부 요인으로써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박미진, 2010: 896; 898).

둘째, 지역활동 참여 의지는 지역활동 참여라는 행위에 대한 개인적 결의 수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활동 참여에 대한 개념정리가 지역활동 참여 의지를 규정하는데 가장 적절하다. Arnstein(1969)은 지역활동 참여에 대해 정보와 자원의 배분, 정책의 형성과 진행에 참여하지 못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전략이라고 정의하였고, Herson & Billand(1990)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다 실제적 쟁점들에 대하여 의견 표출적 특성을 가진 활동을 영위함으로써 개인적 관심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민소영·이영순(2003)은 특정 개인이 타인과 유의한 집단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자기 및 집단 효능감을 배양하고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 범주에 산재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것으로, 하혜승·이재성(2008), 이승중(2003)은 지역활동 참여에 대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특정 지역의 정책과정에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정부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라고 기술하였다. 지역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상호학습과 정치적 설득이 가능해지며 그로 인해 지방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개체들과의 적대감을 감소시키고 신뢰를 축적하며 각종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진두생, 2009: 21). 지역활동 참여 의지를 구성하는 세부 요인들은 앞서 확인한 지역사회인식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심리적 속성을 강하게 갖기 때문에 합의된 정의가 없다. 그에 따라 통상 특정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굳은 신념, 참여하는 활동에 협력하고자 하는 의사, 기타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정치적·시민적·문화적 등 다양한 유형의 활동에 참가하려는 판단, 지역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신뢰, 협력에 대한 보상 기대, 참가와 협력이라는 가치에 대한 인지수준 등으로 판별한다(박미정, 2001; 윤중국, 2008; 임상호, 2007; 정봉섭, 2010). 관련 선행연구들을 제고해보면 지역활동 참여 의지는 크게 두 가지 행위에 대한 의사를 전제하고 있는데, 특정 활동에 대한 참가에 대한 의사가 하나이며, 그 활동에 단순히 가담만 할 것인지 협력이라는 적극적인 양태를 보일

것인지 결정하는 의사가 다른 하나이다. 전자의 경우 지역활동 참여 의지가 지역이라는 특정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전제되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의사 결정단위로 볼 수 있으며, 후자는 참가 이후 해당 행위의 활동 수준을 의미하기 때문에 필연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임상호(2007), 김종규(2012) 등의 연구는 지역활동 참여 의지를 주민들의 활동에 대한 참가와 협력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행사나 기타 특정 활동의 기획과 실행 상 목적달성이라는 측면에서 자율적 의사결정을 강조한 것이 활동참여의사, 적극성에 대한 의사결정을 강조한 것이 협력의사로 정리하고 있다.

셋째, 지방정부신뢰(local government trust)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위험성을 감지하였음에도 그를 감수하려는 자발적 의지를 의미하는 신뢰(Mayer et al., 1995; Rousseau, et al, 1998)가 개념화되어 적용된 것이다. 그래서 지방정부신뢰는 공적신뢰이자 정부신뢰의 한 부문으로서, 제도화된 질서의 정당성과 깊은 관계를 갖고 지역사회의 기본적 운영 규칙에 대해 공유되는 해당 지역사회 내 제도와 규범, 체제 자체에 대한 믿음이다(박병진, 2004: 44; 90). 또한 대응성이나 정치효능감, 지역사회, 경제생활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상승하고, 실업률이나 소득불평등이 강하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정광호·이달곤·하혜수, 2011: 184-185). 지방정부신뢰가 정부신뢰의 세부 영역임을 감안하면 정부신뢰와 관련되어 규정된 요인들을 지방정부신뢰의 관계요인으로 같음할 수 있다. 요컨대 Deutsch(1962)가 능력, 호의, Barber(1983)가 성과에 대한 기대, 신탁적 의무, 책임감, Butler(1991)가 능력, 개방성, 일관성, 약속이행, 공정성, 호의, Mayer, Davis & Shcoorman(1995)이 능력, 정직성, 호의, 성실성을, 박종민(1991)이 신용성, 공평성, 정직성, 이시원(1994)이 능률성, 적절성, 공정성, 능력 및 정직성, 문제해결 노력, 박통희(2000)가 정부능력, 개방성, 일관성, 정직성, 공정성, 호의, 이종수(2001)가 효율성, 일관성, 청렴성, 공정성, 교육 및 홍보, 손호중·채원호(2005)가 협상능력, 전문성, 공개성, 일관성, 정직성, 공정성, 정부PR, 박정훈(2008)이 업무수행의 전문성, 효율성, 국민요구반응, 도덕성을 각각 신뢰의 강화 혹은 저하 관련 영향요인이자 구성인자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정부

신뢰와 관련된 요인들이 위험과 그에 대한 자발적 감내라는 근원적 요소를 제외하면 개인 및 환경, 상황적 요소에 의한 가변성이 너무 강하여 관계된 변인들이 수없이 존재(Hosemer, 1995: 380)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신뢰를 특정할 수 있는 요소 역시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술한 선행연구들의 지방정부신뢰 구성요소를 다시 범주화하면 지방정부가 전문적(expertise)으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그 과정이 공정(fairness)하고 투명(transparency)할 때 가장 믿음을 갖게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전문성 혹은 능력, 공정성, 투명성은 실제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요인들로서, 전문성의 경우 감정적 유대가 기반인 1차 집단을 제외하면 전문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주체에 대해 신뢰형성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기술하고 있다(이준걸, 2012: 11). 또한 공정성은 다양한 신뢰와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공정한 태도를 지향할수록 호의적 태도 형성이 가능해지고, 반대로 그렇지 못할 경우 큰 반발에 직면하게 된다(이재훈·최익봉, 2004: 100-101). 투명성은 관계자들에게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하고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있음을 뜻한다. 부정부패나 비리가 발생한 경우 정부신뢰가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실증은 국내외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윤리와 도덕성은 지방정부신뢰에 직접적이고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장용진, 2013, p. 196). 지방정부신뢰 역시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각각의 목적에 비추어 다양한 개념 정의와 구성요인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단정적 기술은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Barber(1983) 이외의 5개 해외연구와 이종범(1988) 이외의 11개 국내연구에서 제시한 지방정부신뢰 영향요인들을 정리한 김관보·채경진·손호중(2012: 272)의 연구내용을 보면 지방정부의 능력이나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을 대다수의 연구가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신뢰의 개념 정의에 지방정부의 성과·지역주민의 긍정적 기대·평가적 태도를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이곤수·송건섭, 2011: 490; 전계영, 2009: 18). 즉 지방정부신뢰는 지방정부에 대해 지역주민이 성과를 평가해 갖는 긍정적 기대나 태도로 볼 수 있다.

지역사회인식이 지역활동 참여 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활발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김종규(2009)가

소속감, 연대의식, 정주의식 등의 지역사회인식이 주민들의 지역활동 참여와의 영향관계를 지역발전이라는 매개변수와 함께 확인하여, 모든 지역사회인식이 지역활동 참여와 관련한 것으로 판명하였다. 김혜정(2012)은 시민의식, 지역사회에 대한 무관심 수준, 지적 자신감 등의 개인적 지역사회인식이 시민으로써 지역공동체 활동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시민의식과 정치효능감 등의 지역사회인식이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영원(2014)은 지역공동체 의식이 지역사회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의사소통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여 정서적 유대감과 지역사회 관여 수준 등이 영향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서용석(2002)은 앞서 연구들과 다른 결과를 창출했는데, 지역주민의 시민의식이라는 지역사회인식이 지역 정치활동 참여와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지역사회인식이 정치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 지역사회인식과 지방정부신뢰 간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는, 엄묘섭(2007)이 시민사회문화의 의미 일부분에 지역사회인식을 포함시켜 정부신뢰를 내포하는 사회적 신뢰 사이의 관계를 정성적으로 분석한 연구, 이현국·김윤희(2013), 안광일(2015)와 같이 경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지방정부 성과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과 지방정부신뢰 사이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여 일부의 성과관련 지표만이 지방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연구, 이곤수·송건섭(2011)이 지역주민이 느끼는 삶의 질이라는 인식수준과 지방정부신뢰 간 영향관계를 파악한 연구 등 다소 광범위한 지역사회인식의 시각에서의 연구가 다수였다. 끝으로, 지방정부신뢰와 지역활동 참여 사이의 영향관계에 대해 고찰한 연구는, 김구(2009)가 지방정부신뢰를 통해 전자적 경로를 통해 지역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성적으로 설명한 연구, 홍혜승(2013)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지역사회 참여의 일환인 정치적 참여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파악한 연구 등이 일부 있었으나 앞서 지역사회인식과 지방정부신뢰 사이의 연구와 같이 다소 포괄적인 의미의 지역활동 참여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였다. 정리하면, 선행연구들 중에서 지역사회인식과 지역활동 참여, 지방정부신뢰 각각의 별도로 이루어진 연구는 일정 수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각 연구별로 도출된 결과들이 다소 상이하고, 포괄적인 개념

수준에서 분석도구가 설정되어 보다 구체화된 분석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설정과 같이 세 요소를 영향관계로 설정하고 행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특화한 연구 역시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시도는 그러한 차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상 각 변수별 영향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각 변수별 영향관계 규명 선행연구 정리

영향관계	선행연구	연구결과
지역사회인식 → 지역활동 참여 의지	김종규(2009), 김혜정(2012), 이영원(2014), 서용석(2002)	긍정적(+) 영향관계 확인
지역사회인식 → 지방정부신뢰	엄묘섭(2007), 이근수·송건섭(2011)	긍정적(+) 영향관계 확인
	이현국·김윤희(2013)	일부 요인만 긍정적(+) 영향관계 확인
지방정부신뢰 → 지역활동 참여 의지	김구(2009), 홍혜승(2013)	긍정적(+) 영향관계 확인
지역사회인식 → 지방정부신뢰 → 지역활동 참여 의지	국내에서 수행된 사례 부재	

상기 지역사회인식, 지역활동 참여 의지, 지방정부신뢰가 여성에게 있어 더욱 중요한 이유는 우선, 지방정부의 주도적 사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역 활동에 대한 참여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원론적 사실에 근간한다. 최근의 사회는 지식기반 사회로 접어들면서 자본이나 시설과 같은 유형의 자산보다 창의성 높은 지식·정보·아이디어를 중시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인력개발을 통한 차별적 가치를 창출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생존환경으로 변모하게 되었다(오현석·류혜현·김국균·최예슬·서동인, 2011: 248). 인적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사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더욱 어렵기 때문에 전략적인 행보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활용 범주와 여력이 남아있는 지역여성 인력의 활용은 지역의 혁신적 생산성 증대와 지속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지역활동 참여 의지에

대한 제고와 성찰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 김홍순·원준혁(2013), 오영은·이정화(2012), 조영숙·황대용·박은식·고정숙(2004) 등의 적지 않은 지역사회인식 관련 선행연구들이 보편적인 인식이나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달리 여성의 지역사회인식 정도가 남성을 크게 상회함을 보고하고 있으며, 성별에 따른 지방정부신뢰 수준이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없다는 중론 속에서 정광호·이달곤·하혜수(2011)를 포함한 몇몇 연구들이 여성의 지방정부신뢰 수준이 남성보다 높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즉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인식, 지방정부신뢰가 각각 지역활동 참여 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정 수준 확인된 상황에서, 현재 지역사회인식 및 지방정부신뢰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보다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의 영향관계를 실증함으로써 향후 여성의 지역활동 참여와 관련되어 유의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적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분석대상으로 강원도 평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197명을 선정하였다. 많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평창군을 선택한 이유는 평창군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서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역활동이 영위되고 있어 보다 지역사회인식이 다른 시기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계기가 마련되어 있고, 지역활동 참여에 관한 실체적 응답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응답자 197명의 일반적 특성 통계량은 <표 2>와 같다. 응답자의 연령은 40~49세(23.9%)가 가장 많았고, 학력은 고졸이하(56.9%), 직업은 자영업(27.3), 월평균소득은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이하(29.9%)가 가장 많았다. 설문은 연구목적을 설명하여 사전에 허락을 받은 뒤 자기응답식으로 작성된 설문지 300부를 2014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배포하여 이루어졌으며, 300부 중에서 252부가 회수되었으나 분석에 활용할 수 없는 미기재 응답지, 일관된 수치로 작성된 응답지 등 불성실 응답지 55부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처리는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였으며, 일반적인 기술통계량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등으로 분석의 사전 준비를

임하였다. 이어 각 분석변수에 대하여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별 차이 여부를 일원분산분석으로 파악하였고, 영향관계와 매개효과의 판단을 위해 상관분석과 Baron & Kenny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Sobel Test를 통해 매개변수의 유의성 검증을 행하였다.

〈표 2〉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통계량

변수	구분	빈도	%	변수	구분	빈도	%
연령	20세 ~ 29세	42	21.3	학력	고졸이하	112	56.9
	30세 ~ 39세	47	23.9		전문대졸	39	19.8
	40세 ~ 49세	70	35.5		대졸	36	18.3
	50세 ~ 59세	25	12.7		대학원졸	10	5.1
	60세 이상	13	6.6	직업	학생	7	3.6
월평균 소득 (만원)	100 미만	40	20.3		판매서비스직	36	18.3
	100이상 150미만	49	29.9		자영업	54	27.4
	150이상 200미만	32	16.2		경영관리직	5	2.5
	200이상 250미만	20	10.2		주부	36	18.3
	250이상 300미만	26	13.2		사무직	24	12.2
	300이상	20	10.2		생산기술직	3	1.5
					기타	32	16.2

본 연구에서 선택한 분석변수와 그에 대한 측정지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인식은 애착심, 지역활동에 대한 관심, 소속감을 물어봄으로써 종합적인 수준에서 측정하였다. 애착심, 지역활동에 대한 관심, 소속감 등은 이미 윤종국(2008), 임상호(2008), 김종규(2012) 등의 연구에서 측정 지표로 활용된 요인들이자 앞서 고찰한 다양한 선행연구들도 지역사회인식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 요소로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지역활동 참여 의지는 결과변수로서 박미정(2001), 윤종국(2008), 정봉섭(2010)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지역활동에 직면하거나 나타날 경우 협력하거나 본 활동 및 부가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셋째, 지방정부신뢰는 전술한 것처럼 가장 보편적인 속성을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즉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을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그에 대한 확인은 이시원(1994), 박통희(2000), 이종수(2001),

손호중·채원호(2005), 박정훈(2008)의 연구에서 활용한 문항 중 공통된 문항을 선택하여 수행하였다. 이들 독립, 결과, 매개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모두 Likert 5점 척도로 작성되어 ‘전혀 아니다(1점)’와 ‘매우 그렇다(5점)’ 사이에서 응답자 스스로가 자신의 생각을 직접 표시하도록 구성되었다. 이상 분석변수와 측정지표에 대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측정도구의 설문문항 구성

변 수	세부 변수	문항수	측정지표
지역사회 인식	애착심	2	지역에 지속적인 거주 의사, 타인에 대한 지역거주 권유
	지역에 대한 관심	2	활발한 지역 내 교류에 대한 인지여부, 지역 내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
	소속감	2	지역구성원으로서의 자각, 소속됨으로써의 자각하는 활기참
지역활동 참여 의지		3	본 활동에 대한 참여 의사, 부수 활동에 대한 참여 의사, 제반 지역활동에 대한 협력 의사
지방정부 신뢰	전문성	3	업무처리의 전문성, 행정 노하우 발휘, 정보력 수준
	공정성	3	규정의 준수, 정직성, 약속의 이행
	투명성	3	정책과정의 투명성, 정보의 공개, 청렴성

본 분석에 앞서 마련된 변수들에 대한 척도의 구성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추출방법과 Vari-Max 회전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척도가 .523~.822의 공통성을 보였으나 지방정부신뢰의 전문성 중 정보력 수준이 .497, 공정성 중 규정준수가 .390의 부족한 요인적재량을 보여 분석에서 배제하였으며, 이들 두 척도를 제외하면 회전되어 도출된 성분 값을 통해 확인했을 때에도 지역사회인식, 지역활동 참여 의지, 지방정부신뢰는 모두 적절하게 구성되어 추가로 배제할 척도는 없었다. 이렇게 최종 선정된 척도들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신뢰도 지수를 산정하였는데, 모든 척도가 .628을 넘어 바람직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4>과 같다.

〈표 4〉 척도의 공통성 추출 값 및 신뢰도 지수

변수	세부변수	문항	공통성 추출 값	신뢰도 지수
지역사회인식	애착심	지속적 거주 의사	.669	.682
		지역거주 권유	.523	
	지역에 대한 관심	지역교류 인지	.632	.751
		직접적 활동 관심	.732	
	소속감	지역구성원으로서 자각	.648	.628
		소속을 통한 활기	.593	
지역활동 참여 의지		본 활동 참여 의사	.821	.798
		부수 활동 참여 의사	.819	
		지역활동 협력 의사	.673	
지방정부신뢰	전문성	업무처리 전문성	.655	.707
		행정 노하우 발휘	.643	
	공정성	정직성	.548	.774
		약속의 이행	.706	
	투명성	정책과정 투명성	.668	.789
		정보 공개	.673	
		청렴성	.819	

이상의 분석방법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분석틀은 그림 1과 같다.

※ 연구문제 1. 지역 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역사회인식, 지역활동 참여 의지, 지방정부신뢰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지역 여성의 연령에 따른 지역사회인식, 지역활동 참여 의지, 지방정부신뢰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지역 여성의 학력에 따른 지역사회인식, 지역활동 참여 의지, 지방정부신뢰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 지역 여성의 직업에 따른 지역사회인식, 지역활동 참여 의지, 지방정부신뢰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4. 지역 여성의 월평균소득에 따른 지역사회인식, 지역활동 참여 의지, 지방정부신뢰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연구문제 2. 지역 여성의 지역사회인식은 지역활동 참여 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지역 여성의 애착심은 지역활동 참여 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지역 여성의 지역에 대한 관심은 지역활동 참여 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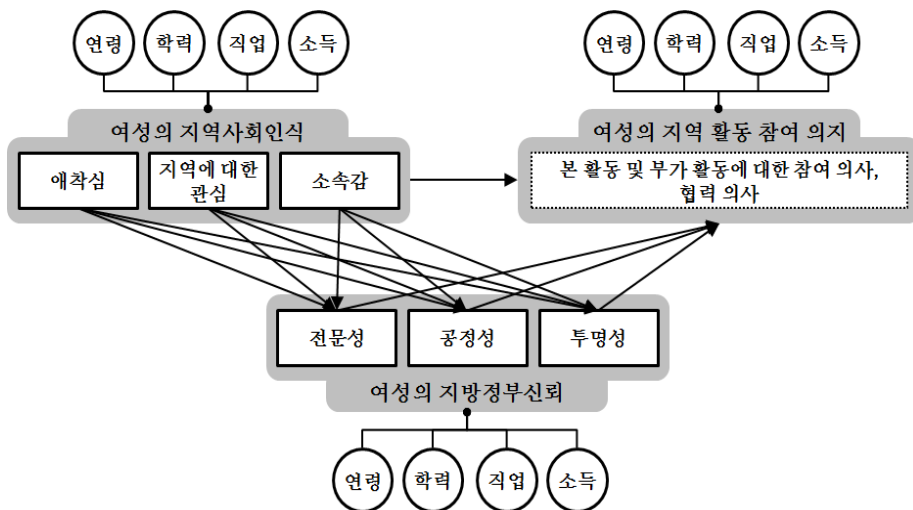
2-1. 지역 여성의 소속감은 지역활동 참여 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문제 3. 지역 여성의 지역사회인식과 지역활동 참여 의지 간 영향관계에서 지방정부신뢰는 매개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3-1. 지역 여성의 지역사회인식과 지역활동 참여 의지 간 영향관계에서 지방정부의 전문성은 매개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3-2. 지역 여성의 지역사회인식과 지역활동 참여 의지 간 영향관계에서 지방정부의 공정성은 매개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3-3. 지역 여성의 지역사회인식과 지역활동 참여 의지 간 영향관계에서 지방정부의 투명성은 매개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Ⅲ. 분석결과

1. 각 변수의 세부척도별 기술통계량분석 결과

첫째, 여성의 지역사회인식 중 애착심은 지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겠다는 의견이 3.26, 타인에 대하여 자신이 사는 지역으로의 거주를 권유하겠다는 의견이 3.13이었으며, 지역에 대한 관심은 지역 내 교류가 활발한지 인지하고 있다는 의견이 3.38, 지역 내 활동에 대해 직접적인 관심이 있다는 의견이 3.13이었고, 소속감은 지역구성원으로서의 자각하고 있다는 의견이 3.34, 지역에 소속되어 있어 활기차다고 느낀다는 의견이 3.29이었다. 전체적으로 여성의 지역사회인식은 높지 않은 편으로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여성의 지역활동 참여 의지는 본 활동 참여의사 2.91, 부수 활동 참여의사 2.82, 제반 지역활동 협력 의사 2.94로 모두 저조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지방정부 신뢰 중 전문성은 지방정부의 업무처리에 대한 전문성 때문에 신뢰한다는 의견이 3.09, 행정노하우를 발휘하기 때문에 신뢰한다는 의견이 2.95이었으며, 공정성은 지방정부 공무원과 기관 자체의 정직한 사고와 행동 때문에 신뢰한다는 의견이 2.82, 지방정부가 철저하게 약속을 이행하기 때문에 신뢰한다는 의견이 2.93이었고, 투명성은 정책과정을 투명하게 기획, 집행하기 때문에 신뢰한다는 의견이 3.09, 정보를 모두 공개하기 때문에 신뢰한다는 의견이 3.34, 청렴성 때문에 신뢰한다는 의견이 3.40이었다. 지방정부 신뢰 수준 역시 앞서 살펴본 다른 변수들과 마찬가지로 높지 않은 편이었으며, 특히 공정성에 대한 신뢰수준이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 변수의 기술통계량분석 결과

변수	세부변수	문항	평균	표준오차
지역사회 인식	애착심	지속적 거주 의사	3.26	0.979
		지역거주 권유	3.13	0.931
	지역에 대한 관심	지역교류 인지	3.38	0.870
		직접적 활동 관심	3.13	0.892
	소속감	지역구성원으로서 자각	3.34	0.886
		소속을 통한 활기	3.29	0.900
지역활동 참여 의지		본 활동 참여 의사	2.91	0.723
		부수 활동 참여 의사	2.82	0.719
		지역활동 협력 의사	2.94	0.750
지방정 부신뢰	전문성	업무처리 전문성	2.98	0.718
		행정 노하우 발휘	2.95	0.657
	공정성	정직성	2.82	0.765
		약속의 이행	2.93	0.753
	투명성	정책과정 투명성	3.09	0.952
		정보 공개	3.34	0.858
		청렴성	3.40	0.805

2. 응답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원분산분석 결과

일원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통해 여성의 지역사회인식, 지역활동 참여 의지, 지방정부신뢰에 대하여 집단별 인식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인 표 6의 내용을 보면, 연령에 따라서 여성의 지역사회인식, 지역활동 참여 의지, 지방정부신뢰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직업이나 월평균소득에 따른 결과 역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학력에 따라서는 지역사회인식 중 지역에 대한 관심과 소속감이 유의한 차이($p<.05$)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에 따라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차이가 있는 집단을 확인하였는데, 지역에 대한 관심과 소속감 모두 고졸이하 집단과 대학원졸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 응답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원분산분석 결과

변수	지역사회인식					
	애착심		지역에 대한 관심		소속감	
	F	p	F	p	F	p
연령	2.402	.051	2.003	.096	1.316	.266
학력	1.427	.236	4.090	.008*	3.734	.012*
직업	0.841	.555	0.938	.479	1.483	.175
월평균소득	0.276	.926	1.275	.276	1.751	.125
변수	지역활동 참여 의지					
	F		p			
연령	0.702		.591			
학력	2.265		.082			
직업	0.896		.511			
월평균소득	1.082		.371			
변수	지방정부신뢰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	
	F	p	F	p	F	p
연령	0.390	.816	0.930	.448	1.140	.339
학력	1.263	.288	2.647	.050	2.164	.094
직업	0.519	.820	1.280	.262	1.485	.175
월평균소득	1.517	.186	1.150	.335	1.278	.275

* $p < .05$ 수준에서 유의함

3. 분석변수들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분석변수들끼리의 위계적 회귀분석에 앞서 선택된 변수들이 어느 정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표 7과 같은데,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 결과, 매개변수 모두 사이에는 유의확률 $p < .01$ 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변수들끼리의 모든 상관관계는 모두 긍정적(+)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각각 .237에서 .794까지의 상관계수를 보였는데, 같은 지역사회인식인 지역에 대한 관심과 소속감 사이의 상관계수가 .794로 가장 높았고, 같은 지방정부신뢰인 전문성과 투명성 사이의 상관계수가 .237로 가장 낮았다. 독립변수인 지역사회인식과 결과변수 지역활동 참여 의지 사이에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지역활동 참여 의지와 가장 밀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변수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애착심	관심	소속감	지역참여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
애착심	1						
관심	.656**	1					
소속감	.670**	.794**	1				
지역참여	.319**	.400**	.346**	1			
전문성	.314**	.351**	.383**	.355**	1		
공정성	.335**	.379**	.404**	.409**	.701**	1	
투명성	.457**	.512**	.445**	.250**	.237**	.272**	1

** $p < .01$ 수준에서 유의함

위계적 회귀분석을 위해 먼저, 여성의 지역사회인식과 지역활동 참여 의지 사이의 영향관계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자 개인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여 산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지역사회인식 중 애착심의 지역활동 참여 의지에 대한 회귀모형설명력은 21.0%, 회귀모형적합도는 $F=11.44(p < .001)$, 지역에 대한 관심의 지역활동 참여 의지에 대한 회귀모형설명력은 25.5%, 회귀모형적합도 $F=14.39(p < .001)$, 소속감의 지역활동 참여 의지에 대한 회귀모형설명력은 19.0%, 회귀모형적합도 $F=10.20(p < .001)$ 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β 값을 통해 변수의 영향력 순위를 파악한 결과, 애착심의 β 값이 .455($p < .001$), 지역에 대한 관심의 β 값이 .509($p < .001$), 소속감의 β 값이 .442($p < .001$)로 결과변수 지역활동 참여 의지에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친 지역사회인식은 지역에 대한 관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8〉 지역사회인식과 지역활동 참여 의지 사이의 회귀분석 결과

	B	β	t	R^2	F
애착심 ► 지역활동 참여 의지	.401	.455	7.05***	.210	11.44***
관심 ► 지역활동 참여 의지	.473	.509	8.00***	.255	14.39***
소속감 ► 지역활동 참여 의지	.424	.442	6.61***	.190	10.20***

*** $p < .001$ 수준에서 유의함

다음 단계의 과정으로, 여성의 지역사회인식과 지방정부신뢰 사이의 영향관계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자 개인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여 산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지역사회인식 중 애착심의 지방정부신뢰 중 전문성에 대한 회귀모형설명력은 10.0%, 회귀모형적합도는 $F=5.35(p<.001)$, 지방정부신뢰 중 공정성에 대한 회귀모형설명력은 9.3%, 회귀모형적합도는 $F=5.02(p<.001)$, 지방정부신뢰 중 투명성에 대한 회귀모형설명력은 10.4%, 회귀모형적합도는 $F=5.54(p<.001)$ 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지역사회인식 중 지역에 대한 관심의 지방정부신뢰 중 전문성에 대한 회귀모형설명력은 15.6%, 회귀모형적합도는 $F=8.23(p<.001)$,

지방정부신뢰 중 공정성에 대한 회귀모형설명력은 11.1%, 회귀모형적합도는 $F=5.88(p<.001)$, 지방정부신뢰 중 투명성에 대한 회귀모형설명력은 13.3%, 회귀모형적합도는 $F=7.01(p<.001)$ 인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지역사회인식 중 지역에 대한 소속감의 지방정부신뢰 중 전문성에 대한 회귀모형설명력은 11.2%, 회귀모형적합도는 $F=5.93(p<.001)$, 지방정부신뢰 중 공정성에 대한 회귀모형설명력은 13.9%, 회귀모형적합도는 $F=7.33(p<.001)$, 지방정부신뢰 중 투명성에 대한 회귀모형설명력은 15.2%, 회귀모형적합도는 $F=8.03(p<.001)$ 인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β 값을 통해 변수의 영향력 순위를 파악한 결과, 전문성에 대한 애착심의 β 값이 .313($p<.001$), 지역에 대한 관심의 β 값이 .398($p<.001$), 소속감의 β 값이 .338($p<.001$)로 지방정부신뢰 중 전문성에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친 지역사회인식은 지역에 대한 관심인 것으로, 공정성에 대한 애착심의 β 값이 .312($p<.001$), 지역에 대한 관심의 β 값이 .343($p<.001$), 소속감의 β 값이 .387($p<.001$)로 지방정부신뢰 중 공정성에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친 지역사회인식은 소속감인 것으로, 투명성에 대한 애착심의 β 값이 .322($p<.001$), 지역에 대한 관심의 β 값이 .369($p<.001$), 소속감의 β 값이 .398($p<.001$)로 지방정부신뢰 중 투명성에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친 지역사회인식은 소속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9〉 지역사회인식과 지방정부신뢰 사이의 회귀분석 결과

	B	β	t	R ²	F
애착심 ▶ 전문성	.247	.313	4.54***	.100	5.35***
관심 ▶ 전문성	.332	.398	5.88***	.156	8.23***
소속감 ▶ 전문성	.292	.338	4.84***	.112	5.93***
애착심 ▶ 공정성	.242	.312	4.50***	.093	5.02***
관심 ▶ 공정성	.281	.343	4.95***	.111	5.88***
소속감 ▶ 공정성	.328	.387	5.62***	.139	7.33***
애착심 ▶ 투명성	.233	.322	4.68***	.104	5.54***
관심 ▶ 투명성	.282	.369	5.89***	.133	7.01***
소속감 ▶ 투명성	.315	.398	5.83***	.152	8.03***

*** p<.001 수준에서 유의함

끝으로, 여성의 지역사회인식과 지역활동 참여 의지 사이에 매개변수로 지방정부신뢰가 포함되었을 때의 영향관계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0의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인식 중 애착심과 지역활동 참여 의지 사이에 지방정부신뢰 중 전문성이 매개변수로 포함된 경우, β 값이 .455($p<.001$)에서 .425($p<.001$)로, 지방정부신뢰 중 공정성이 매개변수로 포함된 경우에는 .427($p<.001$)로, 지방정부신뢰 중 투명성이 매개변수로 포함된 경우에는 .408 ($p<.001$)로 감소하였다. 즉 지방정부신뢰는 모두 지역사회인식 중 애착심과 지역활동 참여 의지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인식 중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역활동 참여 의지 사이에 지방정부신뢰 중 전문성이 매개변수로 포함된 경우, β 값이 .509($p<.001$)에서 .492($p<.001$)로, 지방정부신뢰 중 공정성이 매개변수로 포함된 경우에는 .487($p<.001$)로, 지방정부신뢰 중 투명성이 매개변수로 포함된 경우에는 .477($p<.001$)로 감소하였다. 즉 지방정부신뢰는 모두 지역사회인식 중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역활동 참여 의지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끝으로 지역사회인식 중 소속감과 지역활동 참여 의지 사이에 지방정부신뢰 중 전문성이 매개변수로 포함된 경우, β 값이 .442($p<.001$)에서 .408($p<.001$)로, 지방정부신뢰 중 공정성이 매개변수로 포함된 경우에는 .414($p<.001$)로, 지방정부신뢰 중 투명성이 매개변수로 포함된

경우에는 .403($p < .001$)로 감소하였다. 즉 지방정부신뢰는 모두 지역사회인식 중 소속감과 지역활동 참여 의지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표 10〉 지역사회인식과 지역활동 참여 의지 사이에 지방정부신뢰가 매개변수로 포함되었을 때의 회귀분석 결과

	B	β	t	R^2	F
애착심 ► 지역활동 참여 의지	.374	.425	6.26***	.215	9.94***
전문성 ► 지역활동 참여 의지	.110	.099	1.46		
관심 ► 지역활동 참여 의지	.458	.492	7.12***	.252	12.01***
전문성 ► 지역활동 참여 의지	.045	.041	0.60		
소속감 ► 지역활동 참여 의지	.392	.408	5.78***	.195	8.89***
전문성 ► 지역활동 참여 의지	.110	.099	1.44		
애착심 ► 지역활동 참여 의지	.376	.427	6.29***	.214	9.89***
공정성 ► 지역활동 참여 의지	.105	.093	1.38		
관심 ► 지역활동 참여 의지	.453	.487	7.21***	.254	12.14***
공정성 ► 지역활동 참여 의지	.071	.063	0.95		
소속감 ► 지역활동 참여 의지	.397	.414	5.74***	.190	8.68***
공정성 ► 지역활동 참여 의지	.082	.072	1.03		
애착심 ► 지역활동 참여 의지	.367	.416	6.14***	.220	10.19***
투명성 ► 지역활동 참여 의지	.148	.122	1.01		
관심 ► 지역활동 참여 의지	.444	.477	7.01***	.257	12.30***
투명성 ► 지역활동 참여 의지	.103	.084	1.26		
소속감 ► 지역활동 참여 의지	.387	.403	5.63***	.199	10.72***
투명성 ► 지역활동 참여 의지	.125	.103	1.46		

*** $p < .001$ 수준에서 유의함

그러나 이상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타당한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그에 1차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확인된 매개관계에 대하여 Sobel Test를 통해 유의성 검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애착심, 전문성, 지역활동 참여 의지 관련 Z값은 2.66, 지역에 대한 관심, 전문성, 지역활동 참여 의지 관련 Z값은 2.88, 소속감, 전문성, 지역활동 참여 의지 관련 Z값은 3.18이었으며, 애착심, 공정성, 지역활동 참여 의지 관련 Z값은 2.59, 지역에 대한 관심, 공정성, 지역활동 참여 의지 관련 Z값은 2.80, 소속감, 공정성, 지역활동 참여 의지 관련 Z값은 3.07이었고, 애착심, 투명성, 지역활동 참여 의지 관련 Z값은 2.83, 지역에 대한 관심, 투명성, 지역활동 참여 의지 관련 Z값은 3.11,

소속감, 투명성, 지역활동 참여 의지 관련 Z값은 3.49이었다. 이처럼 모든 Z값이 1.96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모든 매개변수의 효과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 검증되었다.

IV. 결론 :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 축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최적의 수단으로써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계속적 노력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현재 동계올림픽 개최에 기인해 다양한 지역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더욱 역동적으로 행해질 것이 예상되는 평창군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지역에 대한 애착심, 적극적 관심, 소속감 등 지역사회인식 수준과 지역에서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실시되고 있는 각종 지역활동에 대해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수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수준, 공정한 정책과정과 주민대응,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투명성 등 지방정부신뢰 수준을 파악하였다. 여성들의 지역사회인식과 지역활동 참여 의지, 지방정부신뢰에 대한 측정과 영향관계의 파악은 지역주민으로서의 여성들이 이들 요인들에 관하여 어떠한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현황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제공해주며, 지역여성들이 지역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여성인적자원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영향요인을 입증시켜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대상이 되는 신뢰의 수준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적으로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분석은 각 변수들 수준이 여성들 개개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뒤, 여성의 지역사회인식을 독립변수, 지역활동 참여 의지를 결과변수, 지방정부신뢰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요인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영향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는 첫째, 여성의 지역사회인식, 지역활동 참여 의지, 지방정부신뢰의 기술통계량은 최저 2.82, 최고 3.40로 모두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특히 지역사회인식 평균 3.26, 지역활동 참여 의지 평균

2.89, 지방정부신뢰 평균 3.09로 지역활동 참여 의지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여성들 개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역사회인식과 지역활동 참여 의지, 지방정부신뢰 수준은 차이는 연령이나 직업, 월평균소득에 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학력에 따라 지역에 대한 관심과 소속감이 차이가 나며 고졸이하 집단과 대학원졸 집단 사이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여성의 지역사회인식이 지방정부신뢰를 매개요인으로 하여 지역활동 참여 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는데, 지역사회인식은 모두 지역활동 참여 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별되었고, 지방정부신뢰도 모두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규명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지역여성들의 지역사회인식, 지역활동에 참여 의지, 지방정부신뢰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이고, 이들 요소들 사이에는 밀접한 영향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이 실증되었다. 따라서 반복되어 거론한 것처럼 여성의 지역활동 참여가 여성 스스로 정체성과 위상을 강화하고,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계기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현 상황의 개선과 함께 보다 전향적인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부문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지역여성의 지역사회인식이 지역활동 참여 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믿음이 그 효과에 역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영향관계의 구조를 감안하여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모색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여성들이 각종 지역활동이나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않게 된 근원으로 지적받는 미미한 수준의 성인지적 사업이나 생활정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여성의 의사결정권 부재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이 절실하다. 당연히 성인지적 사업의 양적 확대와 함께 보여주기 식의 형식적인 성인지적 사업 기획을 지양하고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과 함께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생활정치 측면에서 의사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단편적이고 홍보적 수준의 소양교육보다는 보다 개인역량과 자아존중감 등을 배양할 수 있는 전문적 프로그램 단계적 로드맵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성들의 기호에 부합하는 관련 전략 또한 요구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실증하지는 않았지만 선행연구의 제언을 보면 애착심, 소속감,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순차적

상관관계를 가지며(남재화·민병석, 2011; 이성록, 2011; 정민 외 2006), 현재 여성들의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가장 저조하다는 점에 집중해야 한다. 즉 여성들의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낮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나 소속감도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지역사회인식의 저조함은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을 우선적으로 배양하는 조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를 위해 단순하고 분절적인 정책 활동보다 지역주민으로서 자신의 지역에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인프라 마련과 제반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부적으로 기존에 의식전환 교육을 보다 확대해 무상으로 여성들에게 제공하고, 주간동안 바쁜 여성들을 위해 조사를 거쳐 적합한 시간대에 지역여성들 대상의 공청회를 개설하여 그들에게서 요청된 의견은 반드시 이행하고자 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들에 대한 참여 공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고, 활동 참여에 대하여 인센티브로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그를 축적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각종 조직이나 기관에서 교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협약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부가적으로 이러한 과정의 수행에 있어 학력수준에 따라 지역사회인식 중 지역에 대한 관심과 소속감이 차이가 있었음을 감안하여 단계별 프로그램 마련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화된 지역에 대한 애착심은 지역 실정에 맞는 보다 구체적인 수립된 제반 대책들과 함께 실효를 발휘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강화시킬 것이며, 그에 따라 정비례적 영향관계를 갖는다고 판명된 여성들의 지역활동 참여 의지 역시 증가될 것이다. 더불어 이와 같은 제반 활동들이 모두 지방정부의 노력이 포함되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활발한 움직임은 지방정부신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 확인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에 대해 숙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처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형식적인 직무강화 교육을 지양하고 보다 실용적이고 고도화된 교육·훈련 체계를 확립하고, 지방정부 종사원들 개개인들도 업무처리 과정에서도 숙련된 역량 발휘, 공정하고 약속을 이행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우선 본 연구가 결과변수로 설정한 지역활동 참여 의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활발한 지역활동을 추진, 영위할 수 있는 특정한 이슈가 있다는 전제 하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일반적 상황에서의 적용이 불분명하다. 마찬가지로 논리로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정 지역활동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 개의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이기 때문에 일반화에 대한 제한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들로 인해 추가적 분석의 수행이 필요하며 향후 보다 세밀한 설계와 기획을 통한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 고호석(2013). “지역축제의 인지된 효과가 지역사회 애착도 및 협력의사에 미치는 영향”. 지역산업연구. 제36권 제1호. 265-284.
- 곽현근(2003). “동네관련 사회자본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4권 제3호. 259-285.
- 김경준(1998).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김관보·채경진·손호중(2012). “지방정부 신뢰와 정책순응: 경기도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4호. 267-287.
- 김구(2009). “지방정부에 있어서 정부신뢰를 통한 전자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탐색: 웹2.0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제12권 제1호. 131-154.
- 김남수·이인환·김용근(2011). “성내천 복원 후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의식에 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 제39권 제4호. 74-82.
- 김종숙·박수미·오은진·조선주(2008). 새정부의 여성인력개발과 활용을 위한 비전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철호(2013). “지역 브랜드 정체성 구축의 동인으로서의 올림픽 기대가치와 지역사회 소속감 측정 척도 연구”. 브랜드디자인학연구. 제11권 제2호. 149-160.
- 김태현(2002). 21세기에 만나는 여성의 삶.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혜정(2012). “지역사회 시민의 참여활동과 영향요인”. 한국행정학보. 제46권 제2호. 213-240.
- 김홍순·원준혁(2013). “주민참여 및 인식도에 있어서 인구통계학적 요인의 특성에 대한 고찰 - 서울시 마을만들기 3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서울도시연구. 제14권 제1호. 93-111.
- 남재화·민병석(2011). “태권도 시범단의 팀 응집력이 지역사회 애착도에 미치는 영향 -소속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스포츠학회지. 제9권 제4호. 271-283.
- 민소영·이영순(2003). “지역사회 환경이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분석”. 상황과복지. 제43호. 207-235.

- 박미정(2001). “지역주민의 지연성이 메가이벤트에 대한 인식과 협력의사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미진(2010). “빈곤노인의 사회적 고립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인식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제30권 제3호. 895-910.
- 박병진(2004). “공적 신뢰의 조건: 공정성과 처벌의 엄격성”. 신뢰연구. 제14권 제1호. 37-66.
- 박정훈(2008). “정부신뢰와 정책수용: 전자주민카드 정책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46권 제1호. 93-122.
- 박종민(1991). “정책산출이 정부신뢰에 주는 영향”. 한국정책학회보. 제25권 제1호. 291-305.
- 박통희(2000). “한국정부의 신뢰성과 시장경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논문집. 651-659.
- 배귀희·임승후(2009). “정부신뢰가 공식적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제21권 제4호. 1421-1449.
- 서상목·최일섭·김상균(1989).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과 전문인력 활용방안.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서용석(2002). “지역주민의 시민의식과 정치참여에 관한 경험적 연구 - 강화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손호중·채원호(2005).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안군 원전수거물처리장 입지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9권 제3호. 87-113.
- 안광일(2015). “정부성과측정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양기근(2008).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 방안: 경상남도 여성 민방위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위기관리연구. 제2권 제2호. 43-69.
- 오영은·이정화(2012). “사회적관계망 크기와 지역사회공동체의식이 단독가구 농촌노인의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 - 독거노인가구와 노인부부가구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43권. 555-580.
- 오헌석·류혜현·김국균·최예슬·서동인(2011). “국가인적자원개발 경쟁력지수 개발 및 타당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제12권 제3호. 247-277.

- 윤종국(2008). “지역사회 의식과 스포츠이벤트 협력의사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34권. 177-187.
- 윤지현·이환봉(2008). “지역사회 애착도와 지역민의 관광개발 태도 연구”. 관광경영연구. 제12권 제2호. 76-102.
- 이곤수·송건섭(2011).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인식과 지방정부신뢰: 평택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제23권 제2호. 487-509.
- 이성록(2011). 노인자원봉사 코칭. 서울: 미디어숲.
- 이승중(2003). 지방자치론: 정치와 정책. 서울: 박영사.
- 이시원(1994). “경제적 상황요인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보, 제3권. 61-84.
- 이유찬·윤종국·류경희(2004). “스포츠이벤트 참가동기 요인과 지역사회 의식 형성과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21권. 727-740.
- 이영원(2014). “지역 공동체 의식에 따른 지역 사회 참여 활동과 지역 매체 및 대인 커뮤니케이션, SNS 이용 행태에 대한 연구”. 언론학연구. 제18권 제1호. 197-220.
- 이종수(2001). “정부에 대한 신뢰와 그 결정요인”. 사회과학논집. 제32권. 67-86.
- 이현국·김윤희(2013). “정부서비스 성과인식과 정부신뢰: 서울시 정부서비스를 대상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3년호. 275-294.
- 이혜인·홍준형(2013). “정부신뢰와 시민참여: 지난 두 정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활용한 실증분석”. 한국행정논집. 제25권 제3호. 791-822.
- 임상호(2007). “태권도이벤트에 대한 지역사회 의식 및 협력의사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전계영(2009). “지역주민의 지방정부신뢰 영향요인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전형미(2010). “지역사회여성의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울주군지역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연구논문집. 제29권 제2호. 19-40.
- 정민·이미라·노안영(2006).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7권 제4호. 1023-1038.
- 정봉섭(2010). “지역관광개발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와 협력, 통합의 관계”.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수현·강한솔·황은진·이정주·노승용(2012). “시민참여와 정부실패”. 서울 여자대학교 사회과학논총. 제19권. 107-132.
- 정지웅·임상봉(1997). 지역사회개발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조수영·배지양·권구민(2010). “지역민의 기업연고형태 인식과 지역 관심도에 따른 사회공헌 활동의 효과 연구”. 홍보학연구. 제14권 제2호. 145-181.
- 조영숙·황대용·박은식·고정숙(2004). “농촌주민의 지역사회 만족도와 지역공동체 의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15권 제4호. 113-125.
- 주성수·김영태·오현철·박병진·안동근(2007).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서울: 아르케.
- 진두생(2009). “지역개발에 있어서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하혜영·이재성(2008).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 온라인 주민참여 활용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제22권 제1호. 107-134.
- 황용필(2006). “정치적 가치태도형성에 있어서 스포츠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Arnstein, S. R. (1969). A ladder of citizen partnership.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35(4), 216-224.
- Barber, B. (1983). *The Logic and Limits of Trust*.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 Butler, John K. Jr. (1991). Towards Understanding and Measuring Conditions of Trust: Evolution of Conditions Trust Inventory. *Journal of Management*, 17, 643-663.
- Chavis, D. M., & Wadersman, A. (1990). Sense of community in the urban environment: A catalyst for particip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 55-79.
- Deutsch, M. (1962). Cooperation and Trust : Some Theoretical Notes. M. R. Jones(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275-320. Oxford: Univer. Nebraska Press.

- Herbert, D. T. & Ranie, J. W. (1976). Defining Community within Urban Area. *Town Planning Review*, 47(4), 325-338.
- Herson, L. J., & Bolland, J. M. (1990). *The urban web: Politics, policy, and theory*. Chicago: Nelson-Hall.
- Hillery, G. A. (1955). Definition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2), 111-123.
- Hosmer, L. T. (1995). Trust: The connecting link between organizational theory and philosophical ethic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2), 379-403.
- Mayer, R. C., Davis, James H., & Schoorman, F. D. (1995).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 709-734.
- McMillan, D., & Chavis, D.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 Nowell, B., & Boyd, N. (2010). Viewing Community as Responsibility as Well as Resource: Deconstructing the Theoretical Roots of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8(7), 828-841.
- Rousseau, D. M., Sitkin, S. B., Burt, R. S., and Camerer, C. (1998). Not so Different after All : A Cross-dicipline View of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3), 393-404.
- Wilkinson, K. P. (1991). *The Community in Rural America*. New York: Greenwood Press.
- Zaff, J., & Devlin, A. S. (1998). Sense of community in husing for the elderl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6(4), 381-398.

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Sense of Community to the Will of Local Activity Participation by Local Government

- Focused on Mediated Effect of Local Government Trust -

Jae-Moo Lee* , Haeng-Yeol Kim**

Women's participation in the community is necessary to the accumulation of social capital and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and this study was performed to provide scientific information and to take a part in the activation of women's participation in the community.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conducted surveys of women in local communities where various local activities are active and researched women's attachment of local communities, their wills to participate in various local activities performed under local governments and their trusts in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expertise, fairness and transparency. Further, this study analyzed differences between each factor depending on women's general characteristics through the collected data, set up women's sense of local community as independent variables, women's wills of local activities as result variables and women's trusts in local governments as parameters, and this study studied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between each variabl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omen's sense of community, wills of local activities and trusts in local governments were low. Women's academic backgrounds made differences in their interests and sense of belonging in their local communities. Except this, other general characteristics of women were not influential. Moreover, the relationships between women's sense of local communities, wills of local activities and trusts in local

* Dankook University(ljm-policy@hanmail.net)

** Kwangju University

governments were the positive influential relationships, and women's trusts in local governments were parameters for these positive influential relationships.

Keyword : sense of community(attachment, interests, sense of belonging), will of local activity participation, trust in local government (expertise, fairness, transparency)

